

AUTHOR 유태주

TITLE 예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문제에 대한 요한 칼빈과 마틴 로이드  
존스의 견해 비교

IN 인문과 자연

vol.1 (2003): 11-66

## 예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문제에 대한 요한 칼빈과 마틴 로이드 존스의 견해 비교

유태주(한일장신대, 조직신학)

### I. 서론

예정론은 이미 구약성경에 논의되어 왔고(창세기에서 이스마엘과 이삭, 애서와 아곱 등) 신약성경에서 복음서와 바울 서신(특히, 로마서, 에베소서) 등에서 확증된 바 있다.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 예정론이 신학적 주제로 논의된 기록은 오리겐(Origen)에서 출발하여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가 적극적으로 다루었고, 아퀴나스(Aquinas)가 예정론을 취급했으며, 루터(Luther)와 칼빈(Calvin)이 이 주제를 신학의 주요 주제로 다루었으며, 현대에 이르러는 바르트(Barth)가 주요 주제로 다룬 바 있다. 하지만 성경의 명백한 진리를 신학논리로 전술하는 데에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예정교리 속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시도로서 칼빈과 로이드 존스의 견해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예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문제는 우리의 구원신앙을 확립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칼빈(Jean Calvin; 1509-1564)의 예정교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절

대 주권의 중심 교리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음을 칼빈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칼빈의 예정론은 양자의 조화에 형식적으로는 동의하지 못하는 편이다.

이러한 면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좀더 발전적으로 시도하는 분이 로이드 존스(David Marytyn Lloyd-Jones; 1899–1981)이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가 해결 못한 부분은 교부들의 견해로 보완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칼빈의 예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조화롭게 이해하는 것임을 로이드 존스의 견해와 비교 연구를 통하여 재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교회가 선교 1세기를 넘어서면서 인간의 책임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칼빈의 예정론을 왜곡시키는 경향에 대한 다소나마 바른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칼빈의 ‘로마서 주석 9장’과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 제9권’을 중점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 II. 요한 칼빈의 예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 A. 칼빈의 생애와 신학

요한 칼빈(Jean Calvin 1509–1564)은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노옹(Noyon)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 제라르 코뱅(Geard Cauvin)의 4남 2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칼빈은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다.<sup>1)</sup> 이러한 환경에서도 그는 학업에 전념하여 처음에는 신학을 공부했으나

1) 프랑수아 방델,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김재성 역(경기: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9), 16–17. “Jean Calvin, or Calvin, was born at Noyon on July 10th, 1509.” François Wendel, *Calvin*, Trans. Philip Mairet, (New York: Harper&Row, 1963), 16.

오를레앙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그는 인문주의 교육을 받았다.<sup>2)</sup> 그러나 칼빈은 24세에 회심하고 인문주의를 독창적으로 활용하여 기독교 복음을 증거한다. 칼빈은 철학을 성경으로 극복한다.<sup>3)</sup> 그는 파렐의 권유로 1536년 개혁자로서 목회를 시작하였을 때 제네바 교회의 성경 봉독자(Reader in Holy Scripture to the Church in Geneva)로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 후에 성경교사로 일하다가 1536년 10월에 로잔을 개신교화 시키는 회의에서 칼빈의 능력이 인정되어 그 해 11월 시 정부에 의해서 설교자로 인정되었다.<sup>4)</sup> 1537년 1월부터 칼빈은 교회법 작성에 착수했으나 1538년 3월 시정부가 파렐과 칼빈을 제네바 정치야욕을 가진 자들로 오해하고 4월에 시의회로부터 해고당하여 4월에 스트拉斯부르크(Strassburg)로 간다. 이곳에서 『기독교강요』 제2판도 쓰고 부서(M. Bucer)와의 사귐과 프랑스 이민목회를 시작한다. 3년 반 후 1541년 여전의 변화로 칼빈은 제네바에 돌아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 그는 치리 기관인 콘시스토리(Consistory)를 구성한다. 그동안 시 정부 와의 갈등 속에서 일하였으나, 1555년부터는 여전의 변화로 제네바 아카데미(오늘의 Geneva University)도 세운다. 1559년에 와서야 명예시민권을 받고 사십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신학과 신앙적으로 재건하는 일에 힘쓴 칼빈은 1564년 2월 6일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5월 27일에 하나님 앞에 갔다.

칼빈이 아니었으면 16세기 후반 기독교개혁운동은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루터 사후(1546년) 그의 개혁세력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빈주의 개혁신학의 힘은 16세기 후반과 17세기 계속 확산된다. 칼빈주의는 사상적 체계가 칼빈주의 확산에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칼빈의 기독교강요 내용과 조직적 체계가 사상 결집에 모델이 되었다.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명확한 사상체계가 칼빈신학과 교리를 세계적으

2) *Ibid.*, 35.

3) *Ibid.*, 39.

4) 원종천, “칼빈주의의 발달사”, 서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2002.

로 확산시켰다.<sup>5)</sup>

특히 칼빈의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 교리는 루터 이후 법정적 개념에 따라 선행의 부실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으나, 칼빈은 그리스도와 연합교리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 있다. 이신칭의 교리는 루터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그러나 후차적 문제가 등장한다. 즉 멜랑히톤(Melanchthon)은 이신칭의를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의롭다고 판결받는 것으로만 정리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변화된 삶과 체험이 제외된 느낌이 듦다. 그러나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n with Christ) 교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님으로 인간의 공로개념을 배제시킴과 동시에, 인간의 체험내지는 책임의 문제도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sup>6)</sup>

그러면 칼빈의 예정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실상 칼빈의 칭의론과 성화론 등 모든 그의 구원론 체계의 신학적 근거가 예정교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 B. 하나님의 예정 선택

### 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는 선택

칼빈은 인간 구원의 문제의 기초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한다. 선택은 칼빈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되고 인정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은 오직 그리스도 위에 머무신다

5) Ibid. “칼빈주의 유지의 요소는 첫째, 성경 의존으로서 시대가 바뀌고 방법이 바뀌어도 (스콜라주의적 변형) 성경 의존은 바뀌지 않았다. 둘째, 장로교적인 정치 형태이며 이 정치형태는 성경적이고 민주적인 성도 우선형태로 거의 변함없이 지켜왔다. 셋째, 시민사회개념으로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확장되어야 하고 교회 성도들은 시민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도 하나님의 도구로 보아 교회는 절대 정부에 예속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가 정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넷째, 거룩한 삶(성화) 강조로서 진정한 심령에서 우리나오는 거룩한 삶을 강조하였다.”

6) Ibid.

(마 3:17 참조). 우리가 구원과 생명과 천국의 영생을 구하려면,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곳이 없다. 그분만이 생명의 샘이며, 구원의 뒷이며, 천국의 상속자이시다. 그런데, 선택의 목적은 하늘 아버지께서 자비로 삼아주신 우리가 그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선택의 목적은 아무리 이모저모로 생각해 보아도 결국은 이 한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서 받아들이신 자들은 그들 자신 안에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엡 1:4).<sup>7)</sup>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실 수 없고 또한 그들이 처음에 먼저 그리스도에 참여된 자가 아니면 천국 기업의 영광을 얻게 하실 수 없다.<sup>8)</sup>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자기 백성을 삼기 원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기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택함받음을 바로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자신을 속임 없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울이 되신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책(계 21:27) 안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만일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와 교통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양자로 선택(election)되었다는 확고한 증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서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통하게 된은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 증명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옷 입고(롬 13:14) 그 안에서 함께 자라며(엡 4:15), 그가 살아 계시는 까닭에 우리도 산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는

7) W.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trans, H. Knight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0), 168.

8)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L.C.C. Vol. XXI, ed. John T. McNeill, tran.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 III, xxiv, 5 1.1.1.1.

9) *Inst.*, xiv, 5

데(롬 8:32; 요 3:16)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이 하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서 인정되고 있는데 대한 증인이시라고 강조한다.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임으로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떠한 것을 찾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정신나간 일이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택의 장본인이다.<sup>10)</sup> 이렇게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칼빈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우리를 위한 실제적인 의미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됨을 칼빈은 말한다. 따라서 “택함 받은 자들에 관한 한, 하나님의 불의하시다는 비난을 받으실 리가 없는 것은,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을 따라 자기의 긍휼을 그들에게 입혀 주시기 때문이다”<sup>11)</sup>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은 모세가 사용한 두 마디의 단어에 잘 표현되어 있다. “하난”이라는 단어는 ‘은총을 베풀다’, ‘또는 값없이 풍성하게 사랑을 베풀다’를 뜻하며, “라함”이라는 단어는 ‘긍휼히 여긴다’를 뜻한다.<sup>12)</sup>

## 2. 선택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칼빈은 로마서 9:16절 말씀에 따라 “우리가 받는 선택을 우리의 근면이나 열심이나, 또는 노력과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씀에서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원하는 것이나 달음박질하는 것으로는 아무 것도 얻을

10) *Inst.*, III, xxii, 7

11) 『칼빈성경주석』, 존 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편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3), 300-301.

12) *Ibid.*

수 없다는 것이다.”<sup>13)</sup>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실로 하여 “계으름을 괴우거나 전혀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정죄 받아 마땅하다”<sup>14)</sup>고 칼빈은 말함으로 인간의 책임을 그가 소홀하게 여기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고취된 노력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택 교리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활기를 넣어 주시는 경우 우리의 변덕스러움과 나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하고, 또한 우리가 받은 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과, 모든 것이 그에게서 말미암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한편, 두렵고 떨림으로 힘써 우리의 구원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을 조화시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으로 결정짓고 전혀 인간의 근면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 않도록 할 것을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을 비교하면서 칼빈은 강조한다.<sup>15)</sup> 따라서 칼빈은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3. 경건치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 (롬 9:17)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칼빈은 경건치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에 대해서 다룬다. 여기에는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요소가

13) *Ibid.*, 301-303.

14) *Ibid.*

15) *Ibid.*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버리심에 있어서 그가 왜 전혀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와 공평함이 기이하다는 것을 더욱 더 힘써 명백하게 칼빈은 바울의 글에 근거하여 밝힌다. 출애굽기 9:16절에서 인용한 로마서 9:17절 말씀은, “첫째는 바로를 멸망에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예정인데, 이 예정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은밀한 계획과 관련이 있다. 둘째는 이 예정의 목적인데, 이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있다.” 따라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지게 하는 원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비난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다”는 것이다.<sup>16)</sup>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자와 유기된 자에 관한 결과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퍅케 하시느니라”(롬 9:18)는 말씀에 함축되어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이 멸망하도록 눈을 어둡게 하시기를 좋게 여기신 듯하다는 것이다. 특히 칼빈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와 ‘하고자 하시는 자를’이라는 말씀들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바울은 경건치 않는 자의 멸망을 주님께서 예지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의 계획과 뜻에 의하여 작정되어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솔로몬도 경건치 못한 자의 멸망이 미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특별히 멸망할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다”(잠 16:4)는 말씀을 그는 인용한다.<sup>17)</sup>

#### 4.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말할 수 없다

칼빈은 바울의 말을 인용하여(롬 9:20) 인간의 지위를 논증함으로써

불경건하게 참람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일단 제지하고 있다. 그리고 “선택 교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나, 경외심을 가지고 좋게 생각해야 하는 신비인 것이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말씀하시기를 삼가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의 무한한 지혜가 우리의 적은 머리로는 이해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自己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절제와 온전을 요구하신다.<sup>18)</sup> 다만 하나님의 뜻을 공의로운 것으로 성경 본문(롬 9:20)을 따라 칼빈은 동의한다.<sup>19)</sup>

#### 5. 지음을 받은 물건이 그것을 지은 자와 달리어서 안 될 이유는 지은 자가 자기 자신의 권한을 쫓아서 다만 행동한 까닭이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은 귀히 쓸 그릇을, 하나님은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리 없느냐”(롬 9:21)는 말씀에서 ‘권’(權)이라는 단어는 지은 자가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이같은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칼빈은 해석한다. 따라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그것을 지은 자와 달리어서 안 될 이유는 지은 자가 자기 자신의 올바른 행위를 쫓아서 다만 행동한 까닭이다.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절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올바르게 사용하시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고 칼빈은 해석한다.<sup>20)</sup>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의 비난할 수 없는 형평(衡平)은 선택자의 구원에서처럼 유기자의 멸망에서도 분명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이 나타나 있는 한, 그것으로 말

16) *Ibid.*, 303-304.

17) *Ibid.*

18) *Ibid.*, 306-308.

19) *Ibid.*, 306-309.

20) *Ibid.*, 309.

미암아 참된 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칼빈은 로마서 9:22-23 말씀에 근거하여 밝히고 있다.<sup>21)</sup> 따라서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 홀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롬 9:23)라는 말씀대로 바울은 앞에서 ‘유기된 자들을 가리켜 멸하기를 예비된 그릇들’이라고만 말했으나, 이 규절에서는 ‘택함 받은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셨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예비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sup>22)</sup>

#### 6. 구원으로의 선택은 유대인 중에서와 이방인 중에서도 모두 해당된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롬 9:24).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에 관하여 지금 까지 바울이 전개해 온 논쟁에서 다음 두 가지 결론을 이끌어 낸다. 첫 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해서 베풀어지고, 온 세계적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베풀어질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로, 그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아브라罕의 자녀된 모든 자들에게 예외 없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sup>23)</sup>

“호세아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 부르리라”(롬 9:25)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신을 절교하는 뜻에서 말씀되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서 그들의 모든 특권을 박탈하심으로써 이를 성취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계획에 의

21) Ibid., 309-311.

22) Ibid., 311-312.

23) Ibid., 312-313.

하여 자기의 아들들로 예정하신 자들은 그의 아들들이요, 또한 늘 그렇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만 “선택이 소명에 의하여 입증된 자들만을 성경은 흔히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한다.”<sup>24)</sup> 따라서 선택이 그 자체의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하여 이러쿵저러쿵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베푸시기보다는 오히려 진노를 내리시는 자들이 ‘사랑치 아니한 자’라고 일컬어져 있다.<sup>25)</sup>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선택하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여기에 피조물인 인간의 의지가 조금도 개입될 수 없음을 칼빈은 확실히 한다. 그러나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 칼빈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 C. 인간의 책임

##### 1. 이방인들이 얻은 의는 믿음에서 난 의다

유대 민족이 어찌하여 이같이 벼림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한다고 칼빈은 해석한다. 하나님의 은밀한 예정이 모든 다른 원인보다 차원이 높은 것처럼, 경건치 못한 자들의 부패와 사악함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와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sup>26)</sup> “의를 죽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롬 9:30). 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육신의 정욕에 빠져 놀아나던 이방인들이 초대를 받아

24) 여기에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를 선택의 증거로 간주한다.

25) Ibid., 313-315.

26) Ibid., 317.

구원에 동참하고 의를 얻는 한편, 열심으로 율법의 행위에 전력을 기울인 유대인들이 의의 상급을 전혀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것처럼 모순되고 부조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바울은 이 역설적인 진리를 아무런 설명 없이 소개하면서, 다만 이방인들이 얻은 의가 믿음에 있다는 것을 설명조로 부언함으로써 그 역설적인 진리에 있는 귀에 거스르는 요소를 완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귀절에서, 사도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를 높이어. 이방인들이 받은 부르심의 경우 하나님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을 그가 황송하게도 용납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외에 아무 다른 원인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고 칼빈은 해석한다.<sup>27)</sup>

바울은 명백하게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의가 없으면 아무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의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의가 값 없는 화목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칼빈은 여기서 또한 유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는 점’을 말한다. 만일 그들이 처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사모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직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 자체도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칼빈은 부언한다.<sup>28)</sup>

2. 유대인들이 의를 추구하였어도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정도를 벗어나 헛되게 진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롬 9:31). “유대인들이 끈덕지게 의를 추구하였어도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정도(正道)를 벗어나 헛되게 진력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하는 믿기 어려운 말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다”고 하면서, 본문의 ‘의의 법’은 ‘율법의 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칼빈은 본다. 그러므로, 전체 귀절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비록 율법의 의에 의존하고 있지만, 칭의의 참된 방법, 즉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sup>29)</sup>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리”(롬 9:32). 자신들의 행위를 신뢰함으로 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버림받는 것이 당연함은, 그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모른 것을 행하게 되면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 구원도 바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이 밝히고 있음을 칼빈은 확인한다. 그는 또한 ‘믿음’과 행위에서 나는 ‘공로’가 대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믿음과 공로는 전적으로 서로 상반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행위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의에 이르는 데 있어서 유품가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예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공포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칼빈은 본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바 율법의 행위는 의식 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신앙과는 반대되는 행위의 공로를 뜻한다고 해석한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 자체의 공로를 생각함이 없이,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 한다”고 칼빈은 말한다.<sup>30)</sup>

“부딪힐 둘에 부딪쳤느니라”는 말씀은 만일 우리가 스스로 의를 주장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투고 있는 것이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직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고 위로해 주는데 있을 뿐 아니라 육신의 모든 교만을 쥐어버리는 데 있기 때문이다.<sup>31)</sup>

27) Ibid., 317-318.

28) Ibid.

29) Ibid., 318-319.

30) Ibid., 319.

그러나 경건한 자들을 위하여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롬 9:33)는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견고하고 보배로운 돌이요, 가장 튼튼하게 박힌 모퉁이 돌이어서, 그를 의지한 자는 누구나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sup>32)</sup>

이렇게 칼빈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믿음에 기초하여, 그 믿음을 지키는 여부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는 소홀히 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책임이 없다면 유대인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행위에 의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칼빈의 예정론 속에서 그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말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칼빈은 말하고자 예정론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책임을 감소시키지 않음도 그는 말한다. 물론 그의 책임론이 이중 예정이라든가 구원의 길에서 탈락자, 그리고 일반적 부르심과 개별적인 부르심 등으로 표현함으로 논리적인 성경의 진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하였는가는 더욱 깊은 연구와 초대 교부들의 신학 등에 대한 고찰에 맡긴다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칼빈이 인간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그의 글들이 대변한다. 그리고 그의 삶과 교회훈련에 대한 태도에서도 볼 수 있다.<sup>33)</sup>

31) *Ibid.*, 319-320.

32) *Ibid.*, 320-321.

33) 칼빈은 루터의 법정정적 개념의 이신칭의론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n with Christ)의 개념으로 청의와 성화 곧 믿음에 해당한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함으로, 인간의 공로 개념 배제하면서도 인간의 체험내지 책임을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교리도 하나님의 새 언약하에 있는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조; 원종천, “칼빈주의의 발달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2002. 그리고 Peter A. Lillback, *The Binding of God; Calvin's Role in the Development of Covenant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A Division of Baker Book House Co., 2001), 208. “Lutherans still insisted on the law/gospel distinction. The Romanists still required the doctrine of merit. But, those who emerged

그러면 예정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룬바 있는 로이드 존스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하자.

### III.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예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 A. 마틴 로이드 존스의 생애와 신학적 배경

##### 1. 마틴 로이드 존스의 생애

데이비드 마틴 로이드 존스(David Martyn Lloyd-Jones)는 1899년 12월 20일 부친 헨리 로이드 존스(Henry Lloyd Jones)와 모친 막달렌(Magdalene) 사이에 둘째 아들로 웨일즈 지방 카르디프(Cardiff)주의 도날드(Donald)에서 태어났다. 1906년 봄에 부모님과 형(Harold)과 동생(Vincent)과 함께 랑게이토(Liangeitho)마을로 이사해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1938년에 웨일즈를 떠나 런던으로 갔다.<sup>34)</sup> 아버지 헨리 로이드 존스는 성격이 낙천적이면서도 도덕적으로는 아주 곧고 명예심이 강하였다. 어머니 막달렌은 대단히 매력적이고 활동적이며 친절한 분이었다. 로이드 존스는 부친을 무척 존경하고 사랑하였다.<sup>35)</sup>

헨리 로이드 존스의 가족들은 랑게이토로 오기 전에는 회중교회에 다녔고, 랑게이토에서는 칼빈파 감리교회(Calvinistic Methodist Church)에 다녔다. 1904-1905년에 웨일즈 일부 지역에서는 부흥의 불길이

in the tradition of Calvin recognized the covenant context of justification.” 214-230.

34) 박영호, 『로이드 존스의 생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96), 11.

35) Iain H. Murray, 『마틴 로이드 존스 초기 40년사』, 서문강 역(서울: 청교도신앙사, 1990), 6. 제인용, 김위만, 『로이드 존스의 설교에 관한 연구』(서울: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60), 5.

일어나고 있었으나, 랑케이토의 신앙적 분위기는 차가웠다고 로이드 존스는 회고한다.<sup>36)</sup>

로이드 존스는 랑케이토에서 보낸 1910년 1월까지의 소년 시절을 가족과 함께 유복하게 보냈다. 그러나 1910년 1월 19일 저녁 때 발생한 화재로 그의 집은 잿더미로 변했다. 그는 자기 집이 불타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이 세상 자체가 “영구한 도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점차 의식하게 되었다. 주변에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랑케이토의 신앙적 분위기는 냉랭하였다. 로이드 존스는 그 당시 교회가 영적 부흥 운동을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 개혁운동까지도 반대하였던 것으로 회고한다.<sup>37)</sup>

가정의 경제생활은 이때부터 몹시 어려워졌다. 열 한 살 먹은 소년 로이드 존스는 랑케이토에서 4마일 떨어진 트레가론에서 형과 같이 하숙 생활을 하며, 학교를 다녔다. 학교생활에서 로이드 존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포웰 선생님이었다. 포웰 선생님은 로이드 존스에게 역사에 대해 흥미를 갖게하였으며, 학생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도록 교육하였다.<sup>38)</sup>

1913년은 로이드 존스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었다. 첫째로, 그 해는 로이드 존스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해였다. 그의 외조부가 의사였다. 둘째로, 로이드 존스는 1913년에 그의 교회가 초청한 칼빈파 감리교 단체의 예배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다니엘 로우랜드의 200주년 기념 예배에서 로이드 존스는 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던 설교를 듣게 되었다. 다니엘 로우랜드 목사의 기념 예배는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교회에 성령의 강한 능력을 연결시켰다.<sup>39)</sup>

1914년 10월에 헨리 로이드 존스는 가족들과 함께 웨스트민스터의

36) *Ibid.*, 5.

37) *Ibid.*, 6.

38) *Ibid.*

39) *Ibid.*, 7.

례전시가로 이사해서 우유배달업을 시작하였다. 형 해롤드는 사무 변호사의 견습생이 되었고, 로이드 존스는 새벽 4시 30분에서 5시까지 우유 배달을 하였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새 사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게 되자, 로이드 존스는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1916년 여름에 로이드 존스가 치른 시험의 결과는 그의 생애에 전환점이 되었다. 웨일즈 신문에 머리 기사로, ‘랑케이토 소년 데이비드 마틴 로이드 존스 런던 대학교 고등부 시험에 6개 과목 통과, 그 중 5개 과목은 최고 점수’라고 실렸던 것이다. 그런 결과로 런던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바돌로메 병원에서 의학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비록 16세의 어린 나이지만 기초 시험과 학장과의 면접에서 당당히 통과하여 1916년 10월 6일에 학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sup>40)</sup>

로이드 존스는 1921년 10월에 M.B.B.S.(의학 학사)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로이드 존스는 바돌로메 병원에서 외과의사이며, 왕실 주치의였던 토마스 호더(Thomas Hodder) 경 밑에서 일하게 되었다. 로이드 존스는 호더 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사고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몇 가지의 주요한 요점을 마스터하도록 철저하게 훈련받았다.<sup>41)</sup> 로이드 존스는 1923-1924년, 2년간 하더 병원 임상의학 조교로서 복직하였다. 로이드 존스가 호더 경 밑에서 받았던 엄격한 의학적 수련은 하나님께서 후일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전도 사역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었다. 로이드 존스는 친절하고 온후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교우 관계가 원만하였다. 당시의 병역 의무는 의학 공부 덕분에 면제받았다. 로이드 존스에게 있어서 가정과 병원 생활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칼빈파 감리교회인 채링크로스 교회에서 활동하는 일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톰 필립스 박사가 인도하는 대화의 광장에 참여하여 매주일 오후마다 격렬하고 날카로운 논쟁을 하였다. 톰 필립스 박사의 부

40) *Ibid.*, 7.

41) 김위란, *Ibid.*, 8.

친은 예반 필립스로서 50년 동안 베델 칼빈파 감리교회의 저명한 목회자였고, 1859년 웨일즈 부흥 운동의 선구자이기도 했다.<sup>42)</sup>

로이드 존스의 형 해롤드는 군대에서 심장이 약해져서 부상병으로 제대하여 집으로 돌아온 후, 1918년 6월에 쓰러져서 끝내 회복하지 못하였다. 로이드 존스는 형 해롤드의 죽음 후에 “인간은 그림자에 불과하며 인간이 추구하는 것도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기 시작하였다.<sup>43)</sup>

채링 크로스의 목사인 피터 휴거 그리피츠(P. H. Griffiths)는 랑게이토의 목사보다도 더욱 복음적인 기독교 신앙을 강조하였다. 1923년 초에 로이드 존스는 자기의 궁금증에 도움을 주는 설교들을 듣기 시작하였다. 그는 채링 크로스 교회와 웨스터민스터 교회를 왔다갔다 하였다. 캠벨 몰간(Campbell Morgan) 목사, 윌리암스(T. C. Williams) 박사, 존 휴튼 박사의 설교를 듣고 크게 감화되었다. 존 휴튼 박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확신을 주었다. 로이드 존스의 철저한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죄의 문제였다. 로이드 존스는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원리가 무척이나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이익주의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모든 것은 타락한 본성과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그의 체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저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죽었다는 사실, 즉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노예라는 것,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많은 문제들과 질병들의 원인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는 저의 타락한 본성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

42) 박영호, 『로이드 존스의 생애』, pp. 24–25. 제인용; 김위만, *Ibid.*, 9.

43) *Ibid.*, 9.

유는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아의 중심이 본질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sup>44)</sup>

그 후 로이드 존스는 1925년 런던 의과대학에서 학위(doctor)를 받으면서 행한 “현대 웨일즈의 비극”이라는 연설을 통해서 그의 출신 지방에 영적인 대각성이 필요함을 강하게 역설하였다. 연설 주요 내용은 “현재 웨일즈의 타락상에 대하여” 첫째, 사람을 평가할 때 인격보다도 학위를 가지고 평가하려 한다. 둘째,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을 경제적인 부와 그 힘과 지위로 생각한다. 셋째, 지극히 작은 업적을 가지고도 웨일즈 신문에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공직 임명에 대한 국가의 부정 부패가 있고 공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다섯째, 찬송가를 오용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인간의 감정을 노래한다. 여섯째, 설교 강단이 부패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심리학적인 설교보다는 기독교의 구원을 설교해야 한다.<sup>45)</sup>

로이드 존스는 의학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18개월 동안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인생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던 중 1925년 부활절에 모든 문제들과 자기 이익을 포기하도록 만든 체험이 생겼다. 그것은 그가 동생과 서재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마틴을 암습해 왔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나타난 사랑은 로이드 존스를 감동시켰고, 새로운 영적 생활을 시작하게 하였다. 그의 목회 결심에 영향을 준 또 하나의 사건은 청교도의 책이었다. 로이드 존스는 포워(F. J. Powicke)이 쓴 『리차드 백스터(1615–1691)의 생애』를 읽고 큰 도전을 받았다. 그리고 『천로역정』, 『조오지 폭스의 생애』 등을 통해서 청교도 정신을 발견하였고, 청교도를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을 품은 사람들로 이해하였다. 로이드 존스는 1926년 10월 이스트 앤드에 있는 포풀라

44) 박영호, 『로이드 존스의 생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96), 48.

45) *Ibid.*, 50.

선교회에서 처음으로 강단에 섰고, 포트 탈보트 항구의 아베라본에 위치한 베들레헴 교회(Bethlehem Forward Movement Church)에서 11월 28일 주일에 설교해 줄 것을 요청받자 그는 내과 의사였던 아내 베란과 함께 부르심에 응답하였다.<sup>46)</sup>

그 후 로이드 존스는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캠벨 모건의 역사적인 계승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해설교의 왕자”라는 칭호의 계승자가 되었다. 그가 성경의 한 책에 대한 연속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베드로후서 강해 설교》이며, 21년 동안 계속해서 그와 같은 연속 설교를 하였다. 로이드 존스는 사역 초기인 1935년경부터 IVF(Inter-Varsity Fellowship)와 관계를 맺었다. 그는 또한 국제 복음주의 학생연맹(I.F.E.S)을 결성하였다. 그가 이 단체의 의장으로 1944~1959년까지 종사하는 동안 IVF는 그 세력이 확장되었고, 그는 경건주의와 복음주의적 단체로 알려진 IVF에 건전한 교리적 뼈대를 제공하였다.<sup>47)</sup>

로이드 존스는 1968년에 건강의 약화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은퇴했다. 그 후에도 12년 이상을 계속해서 설교했지만, 은퇴 후 그의 주된 사역은 책을 쓰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13권으로 된 주요 설교집 시리즈와 《목사와 설교》 강연을 출판하였다. 1981년 2월 로이드 존스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고 말하면서 1981년 3월 1일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의 비석에 새겨진 비문에는 그가 1926년 11월에 아베라본에서 행한 첫번째 설교의 본문이면서, 그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 온 동기가 되었던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46) *Ibid.*, 59~61.

47) 김위만, *op. cit.*, 12.

## 2.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신학적 배경

로이드 존스도 칼빈처럼 정식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상은 청교도 사상이다. 로이드 존스는 1971년에 웨스트민스터 청교도 연구회에서 행한 “청교도주의와 그 기원”이라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는 웨일즈 칼빈파 감리교회에서 자라났고, 그들의 역사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925년 우연히 리차드 백스터의 최신판 전기를 읽은 후부터 청교도와 청교도 저작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사역 전체가 이것에 의해 좌우되어왔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바입니다.”<sup>48)</sup> 로이드 존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벤자민 워필드(Benjamin Warfield), 조지 흰필드(George Whitefield),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였다.

또한 그는 칼빈파 감리교의 영향을 받았다. 잉글랜드의 감리교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이 칼빈파 감리교(Calvinistic Methodism)이다. 로이드 존스는 스스로를 칼빈주의적 감리교도라 하였으며, 칼빈주의적 교리와 감리교도의 열심의 조화를 항상 주장한다. 그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었기에 교리와 생활은 뗄 수 없는 것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강하게 결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드 존스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두 가지 원리에 관해서 만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첫째로, 성경에 대한 나의 이해와 둘째로, 18세기 칼빈파 감리교의 부흥에 관한 독서입니다. 이것들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 다가올 때에 만약 그것이 위의 틀에 맞지 않으면 나는 어렵게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감리교 선조들의 높은 영성과 깊은 경건으로부터 편이한 어떤 것을 보게되면 그것을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오래 갈등하지 않습니다.”<sup>49)</sup>

이렇게 칼빈의 신학적인 전통에 영향을 받은 로이드 존스는 예정 교리를 성경적 진리로 받아들인다.

### B.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인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교리에 대하여 로이드 존스는 철저히 성경말씀에 경청할 것을 권유한다. “지혜롭게 바울이 말하는 바를 들어보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임을 분명히 알도록 하자. 그러면(롬 9장) 14절로부터 발전시켜 나가는 그의 위대한 논증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sup>48)</sup> 그러므로 로마서 9장을 중심한 그의 선택교리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는 것은 로이드 존스의 선택과 구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였는가를 아는데 중요하다고 본다.

#### 1.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 점은 다른 어느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해당된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다.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그릇된 추측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은 것은 바로 그 이유에서였다. 그들은 그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에게조차 보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 약속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sup>49)</sup>

48) *Ibid.*, 17.

49) 정근두, 『로이드 존스의 설교론』, p. 30. 제인용; 김위만, *Ibid.*, 21.

50) D. M. Lloyd-Jones, *Romans: An Exposition of Chapter 9 God's Sovereign Purpose*; 서문강 역, 『로마서 강해』,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175.

51) *Ibid.*, 176-177.

#### 2.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로이드 존스도 칼빈처럼 구원으로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나 심지어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된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이 해당되는 이 사람들의 현재 신분은 바로 그들 자신 속에 있는 어느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그들이 말하는바 이 “씨”가 된 것은, 그들의 출생이나 그들이 어떤 민족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또한 그들이 행한 어떤 일 때문에 된 것도 아니며, 그들이 복음을 믿는다는 사실 바로 그것 때문에 된 것도 아니다. 그들이 그들 됨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렇게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8-30절에서 “성령을 따라” 난 사람으로 말한 이삭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들의 출생에 하나님께서 간접하신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다.”<sup>50)</sup> 따라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에서 비롯된 것이다.

#### 3. 선택의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이루는 통로이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선택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이루고 열매맺는 통로라고 로이드 존스는 해석한다. 이 선택 또는 선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으며, 언제나 이루어져 왔고, 언제나 이루어질 것이며, 이스마엘과 이삭, 야곱과 애서의 경우에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바울은 잘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이유에서 이 선별과 선택을 방편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 한 가지 이유란 그 방식만이 당신의 뜻과 계획을 확실하고 틀림없이 이행시켜 궁극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sup>51)</sup> 따라서

52) *Ibid.*, 176-177.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고 분명하다.<sup>54)</sup>

#### 4.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으로 주권적인 것이다

로이드 존스도 칼빈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으로 어느 누구에게 구애받지 아니하는 주권적인 것이라고 이해한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어떤 것에 전혀 매이지 않는 선택이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에도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에도 결코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한 가지 요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하나님 당신 자신의 성품과 당신 자신의 영원한 뜻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바울은 예베소서 1:5에서 말한다. “그 기쁘신 뜻대로,” 바울은 그 점을 계속 되풀이한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른 것이다. 오직 그것만이 그 진리에 대한 설명이다.<sup>55)</sup>

#### 5. 하나님의 선택은 택하는 일뿐만 아니라 거절하는 일도 수반한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택하는 일뿐만 아니라 거절하는 일도 수반한다.

53) *Ibid.*, 175-176.

54) *Ibid.*, 176-177. “만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온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끝부분으로 나아가 개선가적인 결론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다. 바울은 여기서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선택의 방식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시고 그 뜻이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55) *Ibid.*, 176-177.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자체보다는 사람의 죄악된 상태를 미워하신다. 사람의 죄악된 자세, 그리고 죄악된 자세가 가져오는 모든 것을 다 미워하신다. 산상설교에서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마 5:45)고 말씀하신다. 여기 로마서 9장의 진술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선택뿐 아니라 물리치심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신다. 죄를 미워하심이 바로 두 번째 원리이다.<sup>56)</sup>

#### 6. 하나님의 선택과 택하심은 인간 무리 가운데서 임의로 어떠한 사람들을 골라내시는 문제가 아니다.

로이드 존스는 사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택과 택하심은 인간 무리 가운데서 임의로 어떠한 사람들을 골라내시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는 단정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나는 그들 중에 이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겠다. 나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려 한다는 식으로 가르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사실상 그것은 사도가 말하고 있는 바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해석한다.

로이드 존스가 그 점을 그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사도가 활용한 두 사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심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 백성을 형성하신다는 점이다. 이삭을 생산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알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직적인 탄생이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태어난

56) *Ibid.*, 178.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이를 택하고 저를 택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밀씀하지 않으셨다는 점이다. 그렇게 본다면 아주 그릇된 관점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생산시키신 것은 이미 그로 말미암아 씨가 이어지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정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 와 있는 어떤 인간집단들을 바라보시면서 매우 고의적이고 불공평한 방식으로 이 사람은 택하고 저 사람은 버린다는 식의 개념을 제거해야 한다. 그들이 다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죄인들이요 동일하게 소망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들 가운데서 이 사람을 택하시고 저 사람을 버린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아니다. 선택의 일은 매우 적극적인 하나님의 과정이다.<sup>57)</sup>

7. 하나님의 구원방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산출하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의 구원방식은 새로운 인류를 산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옛 족속 중에서 선별해 내는 것이 아니다. 아담의 자손들 중에서 얼마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 진술을 바르게 살펴보는 방식은 바울이 이미 5:12-21에서 말한 내용에 비추어 그 진술을 살펴보는 것이다. 모든 인류는 인류 전체의 대표이기도 한 아담 안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하실 때, 그를 통해 온 인류를 대하신 것이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였다. 온 인류가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로마서 5:12절의 명백한 진술이 그것이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57) Ibid., 182.

따라서 그 입장은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다는 것이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아래 있다.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물리침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담을 따라서 난 모든 사람의 입장이다. 한 관점에서 보면 그리하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구원방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러하다. 아담의 타락한 족속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을 뽑아 그들을 개선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 한 새로운, 두 번째 사람이 있다. 마지막 아담이 있다. 로마서 5장 전체의 가르침이 그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병행적인 가르침도 그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의 첫 사람이요, 새로운 인류의 머리 이시다. 여기에 전체적인 열쇠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방식은 새로운 인류를 산출하는 것이다. 옛 족속 중에서 선별해 내는 것이 아니다. 아담의 자손들 중에서 얼마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산출하는 것이다.<sup>58)</sup>

로이드 존스는 이 영적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정확한 때는 관계가 없다고 보면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든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이 점을 완벽하게 예증해 주고 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나 내 어머니의胎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갈 1:15-16). 그가 말하는 것을 주목하자.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택정함을 입은 것은 자기 모태에서부터라고 말한다.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그가 수년 동안 펫박자였으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음을 잘 알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못된 짓을 했으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하여 그리스도를 거스렸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58) Ibid., 180-181.

그가 자기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것도 역시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본성적으로 아담의 자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세상에 오게 하실 때 이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일을 행하셨다. 그것은 다� 셉 도상에서 땅에 맞게 드러났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자가 임태되는 순간부터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sup>59)</sup>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바는, 우리는 그 문제를 시간의 과정의 차원에서 육신적인 본성의 시작으로 살펴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영원한 차원에서 살펴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예베소서 1:3-5절에서 발견한바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대한 진술을 살펴보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같은 진리가 요약 형태로 진술되어 있다.<sup>60)</sup>

육신대로 하면, 곧 본성대로 하면 우리는 모두 아담의 자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의 자손들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산출하시고 존재케 하셨다.<sup>61)</sup>

사도에 따르면 우리는 구원을 적극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정죄받는다. 이스마엘과 애서가 그랬던 것처럼 정죄받아 마땅하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아무 불

59) Ibid., 182.

60) Ibid., 183.

61) Ibid., 185.

평할 것이 없다. 정말 그 일은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여러 사람들 가운데 펼라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것을 산출하신다.<sup>62)</sup>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이 “씨”의 생산을 보증하셨다. 그래서 결국 완전하고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고 철저한 한 인류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머라이시며 우리는 몸이다. 그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맨아들이시다. 전적으로 새로운 분이다. 그는 두 번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이다. 그것이 바로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지 않는가? 그전에는 결코 그렇게 이해한 적이 없는데 말이다. 그것은 옛 인류의 무리 중에서 어떤 것을 뽑아내어 거기마다 무엇을 첨가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을 산출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신비를 이해하도록 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우리가 “기이함과 사랑과 찬미의” 심령에 빠져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sup>63)</sup>

로이드 존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야한다는 것을 좀더 명확하게 해석하고자 힘쓰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선택의 주체와 객체를 혼동하는 칼 바르트의 입장과는 다르다.<sup>64)</sup> 로이드 존스는 선택의 주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심을 강조한 것

62) Ibid., 185.

63) Ibid., 185.

64) 칼 바르트(Karl Barth)는 예정론을 어거스틴과 칼빈의 예정파는 상당히 다른 해석을 하였다. 바르트도 이 교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계시, 소명 등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예정의 객체가 일반 사람인 것을 그리스도로 혼동하였으며, 또한 선택을 개별적인 선택으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바르트의 잘못된 예정론의 논리적 귀결은 만인구원설(universalism)로 흐르고 있다. 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Eerdmans, 1938-79), 111.

은 칼빈과 차이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예정론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 문제에 대하여 로이드 존스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살펴 보고자 한다.

### B.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관계

#### 1. 택함받은 유대인들 중에서 행위에 의지한 자는 멸망당했으나, 이방인들 중에서 믿음을 지킨자는 의를 얻었다

바울이 말하는 바대로 의를 쫓아가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이해했고 이 의를 붙잡았다. 그런데 그 의는 ‘믿음에 속한 의’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즐거워했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행 13:48)는 말씀대로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즐거워하였고 바로 그 사실을 기뻐하였다.<sup>65)</sup>

그러나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것은 사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요점이다. “그들이 의의 법을 쫓았다는 것이다”는 말은 율법의 차원에서 의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 율법은 의견이 분분하나, 사도가 여기서 모세의 법을 생각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로이드 존스는 본다. 의의 일반적인 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sup>66)</sup>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고 중도에서 넘어졌다.<sup>67)</sup>

로이드 존스는 바울의 전체 논증을 이렇게 말한다. “율법을 소유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만들지 않

는다. 율법에 복종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하심을 받는다.”<sup>68)</sup>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상 폐해졌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의 답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sup>69)</sup>

다만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는 너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고 말하며 “부딪힐 둘에 부딪혔느니라 …”고 답한다. 따라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야기된다. 이방인들이 안에 있고 유대인들이 밖에 쫓겨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들이 나라 밖에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는 예언이 기독교회를 통해서 실증되었고 이루어졌다. 여기 이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유대인 중 남은 자들이 함께 있다.<sup>70)</sup> 이렇게 로이드 존스는 택함받은 유대인들 중에서 행위에 의지한자는 멸망당하였으나, 이방인들 중에서 믿음을 지킨자는 의를 얻었다는 것을 말함으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인정한다.

#### 2.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 문제에 대한 해석에 대한 로이드 존스의 분석

##### a.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지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는 견해

로이드 존스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지 선택하시

65) *Ibid.*, 375.

66) *Ibid.*, 375.

67) *Ibid.*, 376.

68) *Ibid.*, 377.

69) *Ibid.*

70) *Ibid.*, 380

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6-29절 마지막까지 사도는 다른 시각에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임을 논증했고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흙과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그 일에 사람이 전혀 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명백하다는 것이다. 또한 야곱과 애서의 차이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모태에서 결정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사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없고는 하나님 나라를 찾는 그 사람의 방식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믿음을 가지느냐의 여부에 달려있고, 그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이다.”<sup>71)</sup> 따라서 이러한 견해를 말하는 자들은, 결국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지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한다.

b.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백성들을 택하신다고 믿으면서도, 그의 택하시는 은혜가 그의 미리 아심에 의해서 제한된다고 말하는 입장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 아심(foreknowledge)을 통해서 믿음을 행사하게 될 사람들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견해이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다른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여기서 ‘어찌 그러하노,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행사하였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고 믿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밖에 있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주장한다. “따라서 오직 한 가지

71) *Ibid.*, 381.

의 설명만 있을 뿐이다. 6-29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조화시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sup>72)</sup>

### c. 루터파(루터의 교훈은 아니고)의 특징적인 가르침이다

루터파의 입장은 이렇다.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하는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사람은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릇된 견해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다. 곧 소극적인 힘인데 그 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거절하거나 저항할 수 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도록 허락하기를 싫어하는 소극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루터파의 관점이 심각하게 그릇되어 있다고 지적한다.<sup>73)</sup>

### 3.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사람의 책임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로이드 존스의 견해

로이드 존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사람의 책임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한 방식들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성 사이의 조화의 관계를 말한다.

a.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위대한 사도의 가르침에 어떠한 모순이 있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된다

72) *Ibid.*, 381.

73) *Ibid.*, 381-382.

로마서 9장을 다루면서 간간이 언급했던 두 교수—다드(C. H. Dodd)와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들은 물론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난제는 아주 간단하다는 것이다. 바울이 스스로 모순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이 때때로 실수를 범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거기에서 사실상 큰 난제에 봉착하였고, 그러한 난제로 말미암아 한참을 써나가는 동안 그저 막연하게 자신의 말을 반복하는 실수를 범했다는 것이다.<sup>74)</sup>

로이드 존스가 이 견해를 정당한 견해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 그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았다고 믿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사도가 스스로 모순된 말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영감을 믿는다고 또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스스로 모순되지 아니하시며 실수를 범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두 교수들은 영감을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이 말씀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말하고, 사도 바울의 글이 다른 성경과 같은 범주 안에 들어야 한다는 사도 베드로의 입장에 찬동한다면, 바울이 스스로 모순된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둘째로, 로이드 존스가 사도 바울이 모순을 범한다는 관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위대한 사도의 지성에 엄청난 불의를 행하는 일이라는 느낌 때문이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지라도 사도 바울이야말로 같은 문맥에서 그처럼 낯을 붉히지 않은 채 자신의 할 말을 번복한 채 있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여기지 않는다. 그는 그 두 교수에 대해서 마땅한 존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들 현대적인 비평가들보다 더 높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셋째로 그가 위대한 사도의 가르침에 어폐한 모순이 있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신비를 제거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매우 훌륭한 원리이다. 곧 난제를 너무 쉽게 설명하는 것 같은 방안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심오한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처럼 그는 그러한 이유에서 그런식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입니다.<sup>75)</sup>

그러나 더 나아가서 로이드 존스가 그러한식의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네 번째 이유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실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데 있다거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대신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그것을 믿었다는 데 있다고 해봅시다 — 그것만이 오직 유일한 설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양심과 하늘의 이름으로 저는 묻습니다. 어째서 사도가 6-29절까지의 내용을 기록했는가 말입니다. 만일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사도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만일 그러한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사도가 상관도 없고 그릇된 것을 무엇 때문에 이제까지 말했을까요? 이는 정말 단순한 설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런식으로 했다면 다음과 같은식으로 말했으면 그만일 것입니다. “자, 불행히도 나는 내 고유의 친척이 교회 밖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마음의 큰 부담감과 끊임없는 슬픈 마음을 갖고 있다. 골육을 따라 내 친척들인 내 형제들을 위해서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을 심정이다. 그러나 이는 비극이다. 그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음을 믿지 않고 대신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런식으로만 말했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사도

74) Ibid., 382-383.

75) Ibid., 383-384.

는 관계된 논증과 함께 다른 모든 진술들을 하였습니다.<sup>76)</sup>

b.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와 인간 책임의 교리가 둘 다 진리이고, 양자는 조화된다

로이드 존스에 의하면, 사도는 여기 로마서 9장에서 두 교리를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도는 이미 1:20절에서 인간 책임 교리를 진술한 바 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꽝계치 못할지니라.”<sup>77)</sup> 그리고 사도는 제2장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진술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요점이 다 진리이기 때문이다. 사도가 아텐에서 설교하면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행 17:30)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신다! 그것이 바로 인간 책임을 역설한 것이다.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기되어야 한다.

소위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불리는 것이 그처럼 잘못되고 비성경적인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기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되어야 합니다. 사도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인간 책임은 성경 전편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교리와 함께 인간 책임의 교리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말입니다.<sup>78)</sup>

성경이 가르치는바 선택은 오로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로이드 존스는 말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76) *Ibid.*, 384.

77) *Ibid.*

78) *Ibid.*, 385-386.

이 선택하지 아니하신 데 돌려서는 안 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기인한다고만 말해야 한다. 그러나 선택하지 않은 것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셨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6-2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점을 풍성하게 살펴보았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뿐이다. “그러면 어째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들이 선택받지 못해서인가?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 데 대한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다.”<sup>79)</sup> 물론 그보다 앞서서 그들이 아담 안에 있었고, 이 멸망의 땅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다. 인간 책임의 교리가 바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거절하는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의 결과이다.”<sup>80)</sup>

로이드 존스는 사도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6-2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이 단락 속에서 어째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지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그들 자신들이 잘못한 책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로이드 존스는 사도는 언제나 한 방식을 가지고 있든 데, 두 가지 요점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선택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성을 사도는 그 둘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도 양자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79) *Ibid.*, 386.

80) *Ibid.*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오직 한 가지 대답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도 한 가지 대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인이기 때문이고, 구원의 복음을 거절한 교만하고 오만한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밀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측면입니다. 바로 인간의 책임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의 교리를 다를 때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선택 교리가 인간에게는 전혀 책임성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전혀 그릇된 것입니다.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는 그 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sup>81)</sup>

이렇게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조화시키는 입장에서 예정교리의 중요 내용 중의 하나인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의 문제를 해석한다. 그는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위대한 공식이라고 말한다.<sup>82)</sup> 그는 요한복음 10:28-29절 말씀을 견인의 교리의 핵심 말씀으로 본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하여 그는 “이 말씀은 교리적인 주장이요, 절대적인 확증의 말씀입니다”고 해석한다.<sup>83)</sup>

그러나 문제는 낙심하여 뒤로 물러간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못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여러분이 볼 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의

81) Ibid., 387-388.

82) Martin Lloyd-Jones, *Faith on Trial*; 《믿음의 시련》, 서문강 역, (서울: 청교도신앙사, 1993), 151.

83) Martin Lloyd-Jones, Ibid., 156.

표장을 나타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결론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에 의한 체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오직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sup>84)</sup>

구원의 길에서 탈락하는 자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 아나라는 입장을 로이드 존스는 취한다. 거듭남의 교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를 의미하며, 아담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으나, 신의 성품에 참여한자는 아니었다고 본다. “그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자음을 받았습니다. 그 이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자로 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분이 되어 결단코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고 로이드 존스는 말한다.<sup>85)</sup> 따라서 그는 로마서 8장 30절(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은 견인의 교리의 강해로 본다. 즉 부르심과 의롭다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기초한다는 말아라는 것이며, 이는 동시에 칭의에 따른 성화(인간의 책임이 포함됨)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증거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로이드 존스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인간의 책임을 예정 교리 속에서 조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의 진리를 보다 명확하게 알기 위하여 성경의 구원관에 충실하고자 하였던 칼빈과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예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견해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84) Ibid., 157.

85) Ibid., 163.

#### IV. 예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칼빈과 마틴 로이드 존스의 견해 비교

##### A. 요한 칼빈의 견해

###### 1.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선택

칼빈은 인간 구원의 문제의 기초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됨을 칼빈은 말한다. 따라서 “택함받은 자들에 관한 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는 비난을 받으실 리가 없는 것은,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을 따라 자기의 긍휼을 그들에게 입혀 주시기 때문이다.”<sup>86)</sup>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은 모세가 사용한 두 마디의 단어에 잘 표현되어 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은총을 베풀다’, ‘또는’ 없이 풍성하게 사랑을 베풀다’를 뜻하며, “라함”이라는 단어는 ‘긍휼히 여긴다’를 뜻한다.<sup>87)</sup>

그러나 경건치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칼빈은 말한다.<sup>88)</sup> 즉 ‘이중예정’인 것이다.

그리고 구원으로의 선택은 유대인 중에서와 이방인 중에서도 모두 해당된다. “호세아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 라 … 부르리라”(롬 9:25)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신을 절교하는 뜻에서 말씀되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서 그들의 모든 특권을 박탈하심으로써 이를 성취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기의 아들들로 예정하신 자들은 그의 아들들이요, 또한

86) 『칼빈성경주석』,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편,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3), 300-301.

87) *Ibid.*, 300-301.

88) *Ibid.*, 303-304.

늘 그렇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만 선택이 소명에 의하여 입증된 자들만을 성경은 흔히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한다.<sup>89)</sup> 따라서 선택이 그 자체의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하여 이러쿵저러쿵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베푸시기보다는 오히려 진노를 내리시는 자들이 ‘사랑치 아니한 자’라고 일컬어져 있다.<sup>90)</sup>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말한다. 선택은 칼빈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되고 인정되어야 한다.<sup>91)</sup> 하나님의 영은 오직 그리스도 위에 머무신다(마 3:17 참조). 우리가 구원과 생명과 천국의 영생을 구하려면,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곳이 없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는 데(롬 8:32; 요 3:16)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이 하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서 인정되고 있는데 대한 증인이시라고 강조한다.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임으로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떠한 것을 찾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정신나간 일이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택의 장본인이다.<sup>92)</sup> 이렇게 칼빈은 예정교리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면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됨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칼빈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89) 여기에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자를 선택의 증거로 간주한다.

90) *Ibid.*, 313-315.

91) W.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trans, H. Knight.(Michigan: Baker Book House, 1980). p. 168.

92) *Inst.*, III, xxii,7

## 2.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

칼빈은 유대인들이 택함받았으나 의롭다함 받지 못한 것은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라 말함으로 사실상 택함받은 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롬 9:31). “유대인들이 끈덕지게 의를 추구하였어도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정도(正道)를 벗어나 헛되게 진력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하는 믿기 어려운 말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다”고 하면서, 본문의 ‘의의 법’은 ‘율법의 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칼빈은 본다. 그러므로, 전체 귀결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비록 율법의 의에 의존하고 있지만, 칭의의 참된 방법, 즉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sup>93)</sup>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롬 9:32). 자신들의 행위를 신뢰함으로 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버림받는 것이 당연함은, 그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모른 것을 행하게 되면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 구원도 바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이 밝히고 있음을 칼빈은 확인한다. 칼빈은 또한 ‘믿음’과 행위에서 나는 ‘공로’가 대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믿음과 공로는 전적으로 서로 상반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행위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의에 이르는데 있어서 유품가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예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공포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칼빈은 본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바 율법의 행위는 의식 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신앙과는 반

대되는 행위의 공로를 뜻한다고 해석한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 자체의 공로를 생각함 없이, 하나님의 궁휼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칼빈은 말한다.<sup>94)</sup>

이렇게 칼빈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책임을 이스라엘에 묻고 계시는 말씀을 가감 없이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이방인 중에서 택함받은 우리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임을 로마서 11:21절은 증거한다. 따라서 칼빈은 택함받은 자들에게도 구원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을 칼빈은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는 것인가?

## 3.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 관계

칼빈은 참으로 믿는 사람은 탈락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버리고 구원의 길에서 탈락하는 자들에 대하여 칼빈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에게 매달린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본다.<sup>95)</sup>

진실로 믿는 자들은 선택되었다고 전제한다. 그런데 타락하는 자들도 부르심과 성화의 길에까지 서 있던 것으로 보인 경우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과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칼빈은 일반적 부르심과 개별적인 부르심으로 나눈다.

일반적인 소명(general calling)으로 하나님께서는 외면적인 복음 선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자신에게로 부르신다. 복음을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서(고후 2:16 참조), 또 더욱 엄격한 정죄의 기회로서 제시하시는 사람들도 부르신다.

다른 종류의 소명은 개별적인 것(special calling)이며, 대개는 신자들에게만 주신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신자들의 마음속을

94) Ibid., 319.

95) Inst., III. xxiv. 7.

비추시어, 선포하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 속에 머물게 하신다. 그러나 간혹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일시적으로 비추어 그도 참여하게 하시지만, 후에 그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그들을 버리시며 더 심한 맹목(greater blindness)으로 벌하시는 일도 있다.<sup>96)</sup>

칼빈은 예수님의 비유(마 22:2-14)를 인용하여 이 문제를 풀이하고자 한다.

주께서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소수 사람들에게만 바르게 존중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어떤 임금에 비유하여 말씀하신다. 왕은 장중한 연회를 베풀고자 사자들을 사방에 파견하여 많은 사람을 초청하나, 수락하는 사람이 심히 적다. 각각 일이 있어서 올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왕은 할 수 없이 네 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부르기로 한다(마 22:2-9). 여기까지는 이 비유를 외면적인 소명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주께서는 후에 첨부해서, 하나님을 좋은 주인으로 비유하신다. 주인은 이 식탁 저 식탁으로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다정한 인사를 한다. 그러나 혼인 잔치에서 입어야 할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면, 합당하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이 그 부정한 옷으로 연회의 기쁨을 모욕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는다(마 22:11-13). 나는 이 말씀이, 믿노라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왔으나 그리스도의 성결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이런 치욕을, 이런 암적 존재를 언제까지나 참으시지 않고, 비열한 그들에게 합당한 처분을 내려 그들을 쫓아버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았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었다.<sup>97)</sup>

그러나 칼빈의 마태복음 22:2-14절에 대한 해석은 무리한 해석으로 보인다.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았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었다”는

말씀은 신학용어로는 ‘선택을 받은 사람은 많았으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적었다’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견해가 로마서와 복음서를 통괄하는 해석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 하여도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그 가지가 꺾인 경우의 말씀(롬 11:17-23)<sup>98)</sup>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칼빈처럼 ‘특별한 부르심’과 ‘일반적 부르심’으로 이분화시키는 무리한 해석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말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칼빈은 말하고자 예정론을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책임을 감소시키지 않음을 칼빈은 말한다.

## B. 로이드 존스의 견해

### 1.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로이드 존스도 인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교리에 대하여 성경 말씀에 경청할 것을 권유한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어떤 사람들에

98)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갈림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 할찌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라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으므로 셨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 테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롬 11:17-23).

96) *Inst., III. xxiv. 7.*

97) *Inst., III. xxiv. 8.*

게만 해당된다고 본다.<sup>99)</sup> 로이드 존스도 칼빈처럼 구원으로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나 심지어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된 것이라고 말한다.<sup>100)</sup> 그는 선택의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이루는 통로라고 말한다.<sup>101)</sup>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으로 어느 누구에게 구애 받지 아니하는 주권적인 것이라고 말한다.<sup>102)</sup>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택하는 일뿐만 아니라 거절하는 일도 수반한다고 함으로 칼빈처럼 사실상 이중예정이다. 따라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자체보다는 사람의 죄악된 상태를 미워하신다. 사람의 죄악된 자세, 그리고 죄악된 자세가 가져오는 모든 것을 다 미워하신다. 산상설교에서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 이니라”(마 5:45)고 말씀하신다. 또한 로마서 9장의 진술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선택뿐 아니라 물리치심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신다. 죄를 미워하심이 바로 두 번째 원리이다.<sup>103)</sup>

그러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과 택하심은 인간 무리 가운데서 임의로 어떠한 사람들을 골라내시는 문제가 아니다.<sup>104)</sup> 하나님의 구원방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산출하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구원방식은 새로운 인류를 산출하는 것이다. 옛 족속 중에서 선별해 내는 것이 아니다. 아담의 자손들 중에서 얼마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리

99) Lloyd-Jones, D. M. *Romans; An Exposition of Chapter 9 God's Sovereign Purpose*, 서문강 역, 『로마서 강해』(제11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176-177.

100) *Ibid.*, 176-177.

101) *Ibid.*, 175-176.

102) *Ibid.*, 176-177.

103) *Ibid.*, 178.

104) *Ibid.*, 182.

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산출하는 것이다.”<sup>105)</sup>

이렇게 로이드 존스도 인류를 향한 구원의 선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다.

## 2. 인간의 책임

로이드 존스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아들인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에 따라 인간의 책임을 인정한다. 즉 그는 믿음을 소유하느냐 버리느냐에 대하여 인간은 책임져야함을 부인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야기된다. 이방인들이 안에 있고 유대인들이 밖에 쫓겨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sup>106)</sup> 그것은 믿음을 지킬 인간의 책임 문제인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선택된 자들이라도 믿음을 소유하느냐 버리느냐의 여부를 묻는 책임이 있음을 간단 명확하게 인정한다.

## 3.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 관계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 문제에 대하여 잘못된 견해들부터 지적한다. 첫째로, 잘못된 견해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지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견해이다.<sup>107)</sup> 둘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백성들을 택하신다고 믿으면서도 그의 택하시는 은혜가 그의 미리 아침에 위해서 계한된다고 말하는 입장이다.<sup>108)</sup>셋째는, 루터파(루터 자신의 교훈은 아니다)의 특정적인 가르침이다.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하는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105) *Ibid.*, 180-181.

106) *Ibid.*, 380

107) *Ibid.*, 381.

108) *Ibid.*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사람은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릇된 견해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다. 곧 소극적인 힘인데 그 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거절하거나 저항할 수 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도록 허락하기를 싫어하는 소극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루터파의 견해에 대하여 로이드 존스는 루터파의 관점이 심각하게 그릇되어 있다고 지적한다.<sup>109)</sup>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사람의 책임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로이드 존스의 견해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성 사이의 조화의 관계를 말한다.

첫째, 위대한 사도의 가르침(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에 어떠한 모순이 있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된다. 만약 모순이 양자에 있다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되고 만다.<sup>110)</sup>

둘째,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와 인간 책임의 교리가 둘 다 진리이고, 양자는 조화된다. 사도가 아덴에서 설교하면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으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신 회개하라 하셨으니”(행 17:30)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으로 바로 인간 책임을 역설한 것이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의 선택만을 강조하고 칼빈의 견해와는 달리 인간의 책임을 말하지 않는 ‘극단적 칼빈주의’를 비판한다. “소위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불리는 것이 그처럼 잘못되고 비 성경적인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sup>111)</sup> 그러나 우리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결과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교리와 함께 인간 책임의 교리가

109) *Ibid.*, 381-382.

110) *Ibid.*, 384.

111) *Ibid.*, 385-386.

항상 따라 다니면서 강조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을 로이드 존스는 역설한다.

로이드 존스는 사도는 언제나 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 데, 즉 주권적 선택과 책임 두 가지 요점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오직 한 가지 대답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도 한 가지 대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인이기 때문이고, 구원의 복음을 거절한 교만하고 오만한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측면입니다. 바로 인간의 책임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의 교리를 다를 때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선택 교리가 인간에게는 전혀 책임성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전혀 그릇된 것입니다.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는 그 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sup>112)</sup>

이렇게 로이드 존스는 선택과 책임을 조화있게 다루면서도, 그러나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을 하나님의 결정론처럼 다름으로서, 칼빈이 남겨 둔 과제인 구원의 길에서 타락하는 자들에 대한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

그는 낙심하여 뒤로 물러간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못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여러분이 볼 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의 표징을 나타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결론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

112) *Ibid.*, 387-388.

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에 의한 체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오직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sup>113)</sup>

따라서 구원의 길에서 탈락하는 자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 아니라는 입장을 로이드 존스는 취한다. 거듭남의 교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자로서 아담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으나, 신의 성품에 참여한자는 아니었다고 본다. “그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자음을 받았습니다. 그 이상이 아닙니다.”<sup>114)</sup>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아담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말씀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러한 모순은 그의 성도의 견인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넘어서서 결정론으로 흐른 결과로 분석된다.

#### 4. 칼빈과 로이드 존스의 공통점과 차이점과 과제

##### a. 공통점

로이드 존스와 칼빈의 견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선택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공히 인정하려는 대전제에 있어서는 같다고 본다. 물론 칼빈은 그 내용에 있어서 양자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로이드 존스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을 조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은 소홀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예정교리는 인간의 책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음이 그의 『기독교강요』 전반에 걸쳐 흐르는 논리이다. 따라서 로이

113) *Ibid.*, 157.

114) *Ibid.*, 163.

드 존스와 칼빈의 견해가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을 공히 인정하려는 대전제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다.

##### b. 차이점

그러나 칼빈과 로이드 존스의 차이점이 몇 가지 있다고 본다.

첫째, 칼빈은 구원의 길에 섰다가 탈락된 자들에 대하여 그들은 처음부터 택함받지 못한 자들로 규정한다. 이 문제는 그의 일반적 소명과 특별한 소명에서 명백히 나타난다.<sup>115)</sup>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결국 탈락할 것을 말한다. 즉 로이드 존스는 구원으로 선택받았으나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타락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한다.<sup>116)</sup> 이 점이 로이드 존스와 칼빈의 차이점이다.

둘째, 칼빈은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견인의 은혜를 말한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선택받아 중생한 자들의 견인의 은혜를 말한다는 점이다.

115) 일반적인 소명(general calling)으로 하나님께서는 외면적인 복음 선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자신에게로 부르신다. 복음을 사랑에 이르는 냄새로서(고후 2:16 참조), 또 더욱 엄격한 정죄의 기회로서 제시하시는 사람들도 부르신다.

다른 종류의 소명은 개별적인 것(special calling)이며, 대개는 신자들에게만 주신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신자들의 마음속을 비축시여, 선포하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머물게 하신다. 그러나 간혹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일시적으로 비추어 그도 참여하게 하시지만, 후에 그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그들을 버리시며 더 심한 맹목(greater blindness)으로 벌하시는 일도 있다.

116) “여러분이 볼 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다른 많은 그리스도인의 표징을 나타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결론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에 의한 체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오직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Ibid.*, 157. 따라서 로이드 존스는 구원의 길에서 탈락하는 자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 c. 남겨진 과제

칼빈이나 로이드 존스 모두 인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받는다고 말한다. 그것은 성경의 보편적인 진리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책임에 있다. 선택받은 자라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선택받은 자는 모두 구원받는다는 결정론적인 견해를 말하여 그의 책임론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로이드 존스는 중생한 자는 탈락할 수 없다는 논리로 역시 문제를 책임의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이 설명 과정에서 “아담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으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아니었다고 본다”<sup>117)</sup>고 말함으로 그의 주장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본다.

따라서 선택받고 중생한 자의 책임의 문제는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본다.

## C.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관한 성경적 답을 향하여

칼빈의 경우 그의 예정론에 결정론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후기 교부에 속하여 성경을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는 어거스틴에게서 비롯된 견해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본다.<sup>118)</sup>

로이드 존스의 경우도(칼빈과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으면서) 예정론에서 결정론적인 견해를 못 벗어나는 것은, 역시 성경에 대한 자의적인

117) *Ibid.*, 163.

118) Geoffrey W. Bromiley, *Histor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역사 신학』, 서원도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2, pp. 110-111. “어거스틴의 《신약핸드북》제27장에 언급한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은 제2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대체하기 위해 혹은 사탄적인 제안이 천사의 세계에 야기시켰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택했던 자들로 정의된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해석은 그의 알레고리칼한 성경해석의 결과이다.

해석을 가끔 하고 있는 어거스틴의 견해가 준 영향으로 보인다. 로이드 존스 역시 감리교의 영향과 함께 청교도적인 영향으로 칼빈의 견해가 특히 예정교리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자가 구원교리에 있어서 핵심에 해당하는 예정론을 말하면서도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점은, 예정론에 어거스틴의 자의적인 성경해석으로 인한 결정론적인 요소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어거스틴의 알레고리칼한 성경 해석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교부들의 로마서를 비롯한 선택과 인간의 책임에 관한 해석에 귀를 기우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부들 중에서도 성경을 문자적 역사적으로 해석한 교부가 요한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 347-407)이다. 특히 그는 헬라 교부로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한 교부로서 어거스틴의 라틴어권과 차이가 있다. 헬라어로 된 신약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요한 크리소스톰의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견해를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에 근거한다.<sup>119)</sup>
2.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구원받는다.<sup>120)</sup>

119) Homilies of St. John Chrysostom, Archbishop of Constantinople, *On the Epistle of St.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송중섭 역, 『크리소스톰 로마서 강해』, (서울: 지평서원, 1990), 393-394. “He had said that God did not cast off His people.”

120)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쥐이우고 너는 믿으므로 셨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롬 ???: 20-21). “옳도다”라고 칭찬한 후 사도는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쥐이우고 너는 믿으므로 셨느니라’라고 말하여 이방인들을 치켜 세웁니다. 상대를 책망하기 위해 일단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다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경고함으로써 그들의 교만을 낮추어 버립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불신의 문제입니다.’ *Ibid.*, 405.

3. 이 믿음을 거부한자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으로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택함받음에 자긍하지 말고 겸손히 믿음을 지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sup>121)</sup>
4.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성취를 위하여 운용되고 있다.<sup>122)</sup>

이러한 크리소스톰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에서 선택과 자유의지의 조화는 오늘의 신학적 난제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다. 칼빈은 예정교리를 잘 정립하였으나 선택과 자유의지 조화에는 좀더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므로 후대 신학자들의 학설대립을 막지 못하였다.<sup>123)</sup>

우리가 칼빈과 비교해 본 로이드 존스는 인간의 책임 문제에 있어서 칼빈이 해결못한 점을 좀더 면밀하기 검토하고 선택된 자라도 중생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말하여 선택받은 자의 책임을 말하고 있으나, 견인의 교리가 칼빈처럼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있음을 본다.

121) “유대인들은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찍힌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찍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시도가 그들 스스로 찍히는 바 되었다고 말한 것은 합당합니다. 그들이 엄청난 죄를 범한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찍히도록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분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마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롬 11:23 주석). *Ibid.*, 406.

122) “제 여러분께서는 유대인을 통해 이방인을, 이방인을 통해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 순종치 않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 때문에 다시 유대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방인이 과거의 유대인처럼 베림을 받아 구원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동안 시기심을 통해 유대인들을 이끌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롬 11:30-32 주석). *Ibid.*, 410-411.

123) 18세기에 와서 칼빈의 구원론 중심의 신학을 재현한 웨슬리는 칼빈주의자들(칼빈의 견해를 웨슬리신)의 독선에 반대하다(TULIP로 요약되는) 예정교리를 거부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바르트(K. Barth)는 칼빈이 남겨 놓은 과제를 풀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는 우를 범하더니 만인구원설(universalism)의 암초에 부딪혀 그의 교리 전체에 파산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크리소스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이 어느 편에 치우침이 없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결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V. 결론

예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관계에 대한 연구의 역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교부시대와 중세기 그리고 개혁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요한 칼빈의 예정론은 교회역사에서 귀중히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관계에 대한 실제적이고 성경적이며 논리적인 결론을 후대에 말끔으로 아직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소고에서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에 관한 문제를 성경적 진리 안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다룬 마틴 로이드 존스의 견해를 칼빈의 견해와 비교함으로 그 문제의 해결점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요한 칼빈(Jean Calvin; 1509-1564)의 예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문제는 중세의 스콜라적인 논증법을 싫어한 칼빈의 교육적이고 학문적 입장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는 점이 있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을 칼빈이 조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다만 선택받은 자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은혜에 돌리고 말하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구원의 길에서 타락한 자들에 대한 그 근거를 유기애 두는 것은 칼빈이 배제한 스콜라적인 논법을 다시 빌려쓰려는 데서 오는 무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로이드 존스는 기본적으로는 칼빈의 예정론을 취하면서도,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인간의 책임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

서 로이드 존스는 선택받은 자라도 중생의 체험이 없는 자들은 구원에서 떠나 믿음을 버리고 탈락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것은 칼빈보다 상당한 전진이다. 그러나 중생한자는 결코 믿음을 떠나 탈락하는 일이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애텐의 아담은 중생한 자의 특징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아니었다고 그 근거를 말한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신의 성품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로이드 존스의 견해는 인간의 책임을 좀더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풀어야 할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 초대 교부들의 견해에 귀를 기우리는 것이 필요함을 느끼고 요한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 347-407)의 해석을 살펴보았다. 그의 견해가 중요한 것은 어거스틴보다 전기의 교부로서 알레고리칼한 성경 해석에 물들지 않고 문자적 역사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에 근거한다. 그러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믿음을 거부한 자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으로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선택 받은자(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은 자 룸 8:30)는 자긍하지 말고 겸손히 믿음을 지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크리소스톰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에서 선택과 자유의지의 조화는 오늘의 신학적 난제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본다.

## 칼빈의 신학과 사회복지 사상

배경식(한일장신대, 조직신학)

칼빈은 일반적으로 그의 주 저서인 『기독교강요』를 통해 종교개혁의 기초를 제공한 한 사람이며 장로교의 교리를 제정한 저술가와 신학자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철저한 인문주의자로서 신앙을 그의 삶 속에 실천한 목회자임을 알게 된다. 동시에 그는 파렐과 함께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하면서까지 종교와 사회의 개혁을 단행할 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 설교를 통해 성경적인 사회복지의 일들을 실현하였다고 보여진다.

본 논고를 통해 필자는 그의 생애와 사상을 간략하게 살펴 본 후 기독교강요와 그의 신학, 정치사상과 두개의 정부 마지막으로 교회의 직임들과 봉사의 직을 논거하면서 한국교회와 연관시켜 몇 가지의 제안을 해 보려고 한다.

### I. 생애와 사상

칼빈은 1509년 프랑스의 노옹(Noyon)에서 태어났다. 그의 원 이름